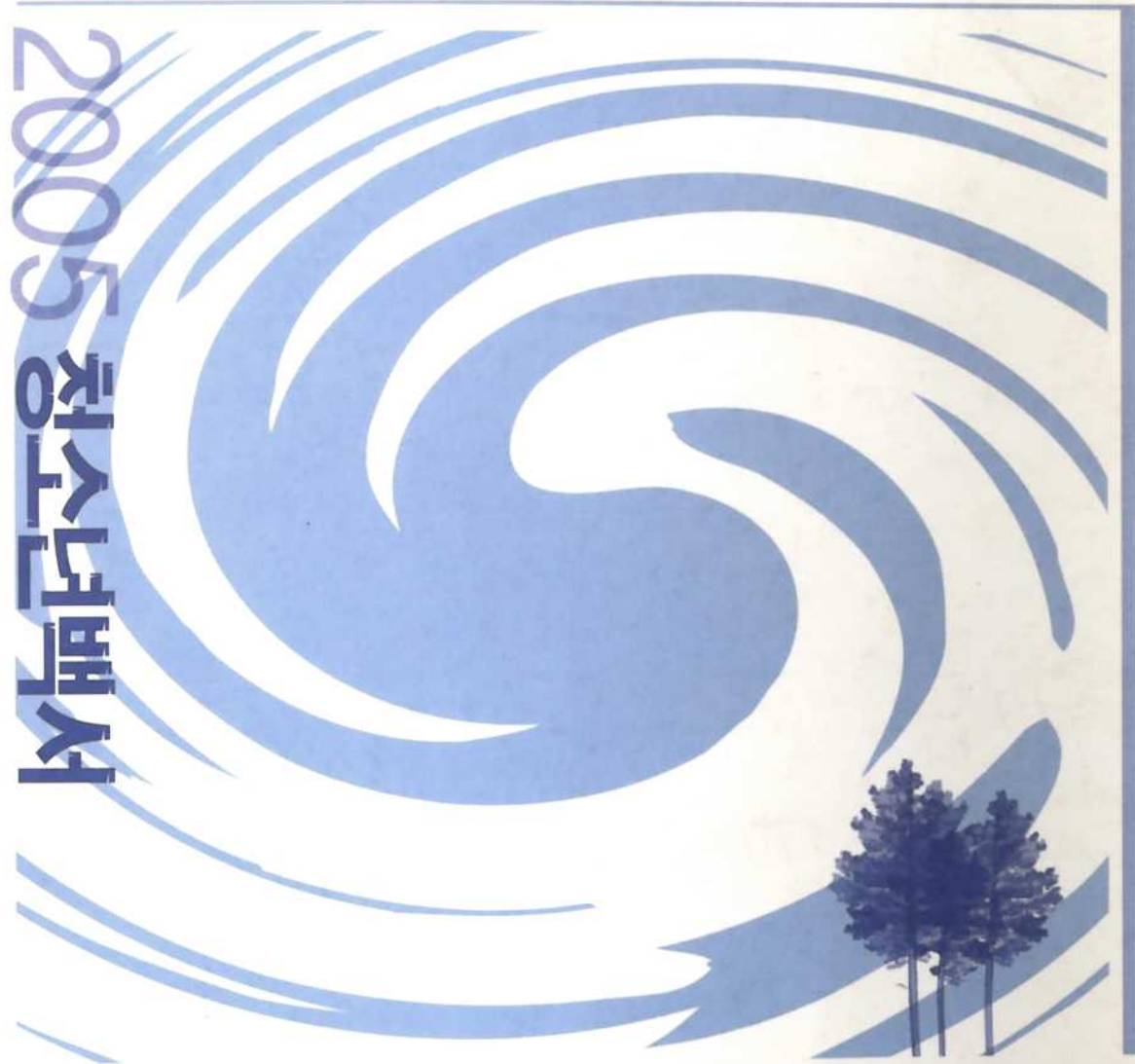


www.youth.go.kr

2005 청소년백서



2005 청소년백서



2005

청소년 백서



2005 청소년 백서



발간사

지난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부서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청소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정책은 여전히 여러 부처의 관련 기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청소년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정리·수록한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청소년백서」에는 청소년의 인구, 보건과 안전, 교육, 근로, 인권·참여, 활동, 보호·복지, 비행 그리고 정책기반과 범정부적 청소년정책, 사회 각계의 청소년 관련 활동과 청소년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청소년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청소년 정책을 구현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발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부처 관계자와 한국 청소년개발원의 연구진, 청소년지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 12.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최영희



제 1 부 총론

- 1.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4
- 2. 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반성 5
- 3. 청소년 정책의 전망 6



제 2 부 청소년 인구

- 제1장 청소년인구 및 인구동태 16
 - 1. 청소년 인구현황 16
 - 2. 청소년 인구전망 17
 - 3. 청소년 인구의 지역별 추이 19
- 제2장 청소년 인구 및 인구동태 21
 - 1. 인구동태개황 21
 - 2. 출생 23
 - 3. 혼인 27
 - 4. 사망 30
 - 5. 청소년인구의 이동 32
- 제3장 가족구성 및 변동 34
 - 1. 가족구성 개황 34
 - 2. 가구수 및 가구원수 36
 - 3. 가구의 세대구성 38
 - 4. 가족구조의 변화 40



제 3 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 제1장 청소년의 건강 46



제 4 부 청소년의 교육

- 1. 청소년의 체격 46
- 2. 청소년의 체질 47
- 3. 청소년의 체력 47
- 4. 청소년의 영양 49
- 제2장 청소년의 안전 53
 - 1. 청소년의 산업재해 53
 - 2. 아동학대 56
- 제1장 학생인구·진학률 및 교육예산 62
 - 1. 학생인구 62
 - 2. 진학률 63
 - 3. 학교교육예산 65
- 제2장 학교교육의 중점추진시책 66
 - 1. 학교급식의 운영 및 개선 66
 - 2.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67
 - 3. 특수교육 중점추진 시책 71
- 제3장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 73
 - 1.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전국 평생학습축제 73
 - 2. 학점은행제 및 통합학위제 74
 - 3.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77
 - 4. 평생학습관 78
 - 5. 학교를 통한 평생교육 81
 - 6. 학교시설 복합화 84



제 5 부 청소년과 근로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88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88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90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92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96
5. 청소년 취업정책	98
제2장 신규졸업자 취업 상황	101
1. 중학교 졸업자 진로 상황	101
2.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상황	102
3. 특수학교 졸업자 진로 현황	104
4.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취업 상황	105
제3장 근로조건	108
1. 임금 및 근로시간	108
2. 근로청소년 특별보호	110
3. 청소년 시간 근로(아르바이트)	114



제 6 부 청소년의 인권·참여

제1장 청소년 인권·참여 정책기반	122
1. 청소년 인권·참여 정책의 형성과정	122
2. 청소년 인권·참여 정책의 기반조성	123
제2장 청소년 인권·참여 정책	129
1.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	129
2. 청소년참여 활성화 정책	132



제 7 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 수련활동	142
1.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142
2.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145
제2장 청소년 교류활동	147
1. 정부의 청소년 국제 교류	147
2. 남북한 청소년 교류	166
3. 취업관광 프로그램 운영(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167
제3장 청소년 과학활동 및 농촌청소년 활동	170
1. 과학기술문화사업	170
2. 지역균형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182
3. 농촌 청소년 지원활동	187



제 8 부 청소년보호·복지

제1장 가정교육기능 강화 및 사회환경 개선	192
1. 부모 교육강화	192
2.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194
3. 대중매체의 개선	196
4. 청소년유해환경 정비	204
5.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	210
제2장 특별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219
1.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 활동지원	219
2. 비정규학교 지원	219
3.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221

4.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221
5. 청소년 공부방 운영	222
6.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223
7.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224

제3장 청소년 상담활동	227
1. 청소년관련 상담기관 현황	227
2.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활동	229
3. 시·도 청소년 상담활동	232
4. 청소년단체의 상담활동	235



제 9 부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제1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240
1. 청소년 비행의 동향	240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242
3. 학생범죄의 동향	243

제2장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리	244
1. 청소년비행의 예방	244
2. 비행청소년의 사법 처리	250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255



제 10 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 시설	266
1. 청소년활동시설	266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274

제2장 청소년지도자	279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279
2. 청소년지도사 현황	280
3. 청소년상담사 현황	286

제3장 청소년단체	292
1. 청소년단체 현황	292
2. 청소년단체의 주요활동	293
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94



제 11 부 청소년정책 기반조성

제1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300
1. 청소년위원회	300
2.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	304
3. 청소년 관련 시·도 행정조직	305

제2장 청소년행정 관련 조정기구	306
1.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306
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307
3. 청소년특별회의	307

제3장 청소년 관련 R&D 기관	309
1. 한국청소년개발원	309
2. 청소년 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313

제4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확충	315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315
2.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및 조성 현황	316

부록 (자료편)

제 2 부

〈표 2-1-1〉 연령별 청소년 인구	17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인구 전망	19
〈표 2-1-3〉 지역별 청소년 인구추이(9~24세)	20
〈표 2-2-1〉 주요 인구동태율 추이	22
〈표 2-2-2〉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24
〈표 2-2-3〉 지역별 출생아 구성비	25
〈표 2-2-4〉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26
〈표 2-2-5〉 지역별 출생성비	26
〈표 2-2-6〉 청소년의 혼인상태별 인구	28
〈표 2-2-7〉 연령별 혼인구성비	29
〈표 2-2-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수 및 구성비	31
〈표 2-2-9〉 평균수명 추이	32
〈표 2-2-10〉 청소년의 지역별 이동인구	33
〈표 2-2-11〉 청소년의 시·군간 인구이동(10~24세)	34
〈표 2-3-1〉 연도별 가구수 및 증가율	35
〈표 2-3-2〉 가구유형별 현황	37
〈표 2-3-3〉 가구원수별 현황	38
〈표 2-3-4〉 세대수별 가구현황	39
〈표 2-3-5〉 연령별 이혼구성비 및 평균 이혼연령	41
〈표 2-3-6〉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42

제 3 부

〈표 3-1-1〉 연도별 체질검사 결과 대비표	48
〈표 3-1-2〉 청소년 1일 영양권장량	51
〈표 3-1-3〉 청소년의 영양소별 영양권장량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연령별)	51
〈표 2-1-4〉 조사 전 2일간의 끼니별 식사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결식율(연령별)	52
〈표 3-2-1〉 연령별 재해발생 현황	54
〈표 3-2-2〉 아동학대 발생유형 및 발생장소	57

제 4 부

〈표 4-1-1〉 GDP대비 교육재정	65
〈표 4-1-2〉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일반회계)	66
〈표 4-2-1〉 학교급식 실시 현황	67
〈표 4-3-1〉 학점은행제 실시 현황	75
〈표 4-3-2〉 독학학위 수여 현황	76
〈표 4-3-3〉 지역·유형별 평생학습관 현황	79
〈표 4-3-4〉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 및 등급별 과정, 이수학점	81

제 5 부

〈표 5-1-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88
〈표 5-1-2〉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추이	89

〈표 5-1-3〉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90
〈표 5-1-4〉 청소년 비경제활동 인구 추이	91
〈표 5-1-5〉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및 활동 상태별 현황	92
〈표 5-1-6〉 연령계층별 취업자 추이	93
〈표 5-1-7〉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93
〈표 5-1-8〉 지역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95
〈표 5-1-9〉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96
〈표 5-1-10〉 연령계층별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97
〈표 5-1-11〉 교육정도별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98
〈표 5-2-1〉 중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	101
〈표 5-2-2〉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102
〈표 5-2-3〉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	102
〈표 5-2-4〉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자수	103
〈표 5-2-5〉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경로별 취업 상황	104
〈표 5-2-6〉 연도별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생수	104
〈표 5-2-7〉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106
〈표 5-2-8〉 전문대학 졸업자 계열별 취업 상황	106
〈표 5-2-9〉 연도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현황	107
〈표 5-2-10〉 대학졸업자 계열별 취업률	108

〈표 5-3-1〉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정액 및 초과급여	109
〈표 5-3-2〉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09
〈표 5-3-3〉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현황	113
〈표 5-3-4〉 아르바이트 경험률	114
〈표 5-3-5〉 아르바이트 구직경로	115
〈표 5-3-6〉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	116
〈표 5-3-7〉 아르바이트 업종	116
〈표 5-3-8〉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보수)	117
〈표 5-3-9〉 아르바이트 임금(형태)	117
〈표 5-3-10〉 아르바이트 관련 인권침해 현황	118

제 6 부

〈표 6-1-1〉 청소년위원회 인권·참여정책 담당부서의 주요업무	124
〈표 6-1-2〉 관련 부처 청소년 인권·참여정책 담당부서와 주요업무	126
〈표 6-2-1〉 2005년 청소년육성기금 1차 공모사업 중 청소년 인권사업	130
〈표 6-2-2〉 2005년 청소년육성기금 2차 공모사업 중 청소년 인권사업	131
〈표 6-2-3〉 시·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현황	134

제 7 부

〈표 7-1-1〉 21세기 청소년상의 영역별 수련거리(93종) 구분	143
〈표 7-2-1〉 국가간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147
〈표 7-2-2〉 국가간 청소년 교류	149
〈표 7-2-3〉 국가별 연도별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150
〈표 7-2-4〉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151
〈표 7-2-5〉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152
〈표 7-2-6〉 청소년 해외파견활동 지원	152
〈표 7-2-7〉 WHP 협정 체결국가 및 비자발급 사항	169
〈표 7-2-8〉 우리청소년의 출국 및 외국청소년의 입국 현황	169

제 8 부

〈표 8-1-1〉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196
〈표 8-1-2〉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197
〈표 8-1-3〉 청소년 성별 게임이용률/청소년 교급별 게임이용률	200
〈표 8-1-4〉 청소년 컴퓨터 이용형태	201
〈표 8-1-5〉 청소년 성별 컴퓨터 이용형태	201
〈표 8-1-6〉 청소년 1회 평균 게임 이용시간	202
〈표 8-1-7〉 청소년들의 게임에 대한 견해	202
〈표 8-1-8〉 청소년 게임이용시 부모제약	202

〈표 8-1-9〉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건수 비교표	203
〈표 8-1-10〉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207
〈표 8-1-11〉 학교폭력 단속실적	207
〈표 8-1-12〉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217
〈표 8-2-1〉 시·도별 청소년 공부방 설치 현황	222
〈표 8-2-2〉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225
〈표 8-3-1〉 상담 및 교육연수 사업실적	229
〈표 8-3-2〉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	230
〈표 8-3-3〉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230
〈표 8-3-4〉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설치 현황	
〈표 8-3-5〉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성별·대상별 상담실적	235

제 9 부

〈표 9-1-1〉 범죄 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	240
〈표 9-1-2〉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241
〈표 9-1-3〉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42
〈표 9-1-4〉 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243
〈표 9-1-5〉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243
〈표 9-2-1〉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조치 현황	244
〈표 9-2-2〉 미아·가출인 발생현황	245

〈표 9-2-3〉 청소년 약물남용 단속실적(유해화학물질)	246
〈표 9-2-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246
〈표 9-2-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 현황	247
〈표 9-2-6〉 학교폭력 연도별 발생 접수현황	247
〈표 9-2-7〉 청소년쉼터 지역분포와 보호성별	248
〈표 9-2-8〉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인원수	249
〈표 9-2-9〉 소년범죄 처리현황	251
〈표 9-2-10〉 학생범죄 처리현황	252
〈표 9-2-1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253
〈표 9-2-12〉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253
〈표 9-2-13〉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254
〈표 9-2-14〉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255
〈표 9-2-15〉 소년원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257
〈표 9-2-16〉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258
〈표 9-2-17〉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259
〈표 9-2-18〉 소년교도소 직업훈련 현황	259
〈표 9-2-19〉 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 추이	260
〈표 9-2-20〉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현황	261
〈표 9-2-21〉 사회봉사·수강명령 실시현황	262
〈표 9-2-22〉 연도별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실적	262
〈표 9-2-23〉 한국更生보호공단 비행청소년 보호실적	263

제 10 부

〈표10-1-1〉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268
〈표10-1-2〉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정 시설	271
〈표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281
〈표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283
〈표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284
〈표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285
〈표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287
〈표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289
〈표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및 시간	290
〈표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291

제 11 부

〈표 11-1-1〉 「청소년위원회」정원 현황	303
〈표 11-1-2〉 부처별 청소년관련 업무 현황	304
〈표 11-1-2〉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305
〈표 11-4-1〉 연도별 청소년예산	315
〈표 11-4-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계획	318
〈표 11-4-3〉 청소년육성기금 용자한도 및 상환방법	319
〈표 11-4-4〉 청소년수련시설 용자지원 현황	319

그림목차

제 4 부

- 〈그림 4-1-1〉 연도별 학교 교육인구 추이 63
 〈그림 4-1-2〉 연도별·학교급별 진학률 추이 64

제 5 부

- 〈그림 5-1-1〉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94
 〈그림 5-2-1〉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105

제 9 부

- 〈그림 9-2-1〉 보호소년 수용현황 256

제 10 부

- 〈그림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266
 〈그림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279
 〈그림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282
 〈그림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288

제 11 부

- 〈그림 11-1-1〉 청소년위원회 조직도 302

부록목차

- 〈부록표·그림 1〉 2004년 인구현황 322
 〈부록표·그림 2〉 청소년 사망원인 323
 〈부록표·그림 3〉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건강평가 324
 〈부록표·그림 4〉 학령인구 325
 〈부록표·그림 5〉 연도별 학교 교육인구 326
 〈부록표·그림 6〉 연도별 진학률 추이 327
 〈부록표·그림 7〉 연도별 실업계고 학교수 328
 〈부록표·그림 8〉 연도별 실업계고 학생수 328
 〈부록표·그림 9〉 특수학교 현황 329
 〈부록표·그림 10〉 연도별 각종학교 및 기타학교 교육인구 330
 〈부록표·그림 11〉 교원 1인당 학생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31
 〈부록표·그림 12〉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332
 〈부록표·그림 13〉 학생의 학교 교우관계 만족도 333
 〈부록표·그림 14〉 학생의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334
 〈부록표·그림 15〉 학생의 학교시설 만족도 335
 〈부록표·그림 16〉 학생의 학교주변환경 만족도 336
 〈부록표·그림 17〉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337
 〈부록표·그림 18〉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338
 〈부록표·그림 19〉 청소년인권센터 현황 339

〈부록표·그림 20〉 전국쉼터 현황	340
〈부록표·그림 21〉 성매매피해상담소	343
〈부록표·그림 22〉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	344
〈부록표·그림 23〉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345
〈부록표·그림 24〉 연도별 아동복지 시설수 및 수용인원 현황	345
〈부록표·그림 25〉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	346
〈부록표·그림 26〉 최근 1년간 급우나 또래로부터의 욕설이나 협박경험	347
〈부록표·그림 27〉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상담내용별 상담실적	348
〈부록표·그림 28〉 사이버 상담실적	348
〈부록표·그림 29〉 채팅 및 메일 상담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348
〈부록표·그림 30〉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349
〈부록표·그림 31〉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	350
〈부록표·그림 32〉 청소년의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351
〈부록표·그림 33〉 청소년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352
〈부록표·그림 34〉 특성화된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현황	353
〈부록표·그림 35〉 연도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353
〈부록표·그림 36〉 시도별·유형별 수련시설 현황	354

〈부록표·그림 37〉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율	357
〈부록표·그림 38〉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358
〈부록표·그림 39〉 청소년의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359
〈부록표·그림 40〉 청소년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여부	360
〈부록표·그림 41〉 청소년의 인터넷 상거래 물품	361
〈부록표·그림 4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	362
〈부록표·그림 43〉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	363
〈부록표·그림 44〉 청소년의 TV시청시간 및 시청률	364
〈부록표·그림 45〉 청소년 PC방 이용형태	365
〈부록표·그림 46〉 청소년 성별 1회 평균 게임 이용시간	365
〈부록표·그림 47〉 청소년 교급별 1회 평균 게임 이용시간	365
〈부록표·그림 48〉 청소년 주요이용 게임분야	366
〈부록표·그림 49〉 청소년 주요이용 게임장르	366
〈부록표·그림 50〉 청소년폭력예방 관련기관·단체 현황	367
〈부록표·그림 51〉 청소년 범죄 연령별 현황	369
〈부록표·그림 52〉 청소년 범죄의 남녀별 현황	369
〈부록표·그림 53〉 청소년 범죄의 교육정도별 현황	370
〈부록표·그림 54〉 청소년 범죄 가족관계별 현황	370
〈부록표·그림 55〉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371

〈부록표·그림 56〉 소년범죄자 공범관계 현황	371
〈부록표·그림 57〉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372
〈부록표·그림 58〉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372
〈부록표·그림 59〉 소년원학생 자격 취득 현황	373
〈부록표·그림 60〉 소년원학생 진학 현황	373
〈부록표·그림 61〉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변화	374
〈부록표·그림 62〉 청소년의 음주율 변화	375
〈부록표·그림 63〉 청소년의 담배 등 약물사용 경험	376
〈부록표·그림 6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377

제1부 총론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2005년도에 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된 청소년 정책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푸른 성장」을 국가 청소년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 꿈과 희망, 도전과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정책을 구현해 내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푸른 성장이라는 청소년 정책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기회를 보장하며,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청소년 정책의 구체적 목표가 달성될 때 모든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푸른성장

비전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청소년정책
꿈, 희망,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청소년정책
청소년, 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정책

성인



정책
목표

위 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다양한
활동
기회 보장

청소년
참여
인권 증진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제 1 장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청소년위원회의 출범 -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의 이원화 체제로 추진해 온 결과 통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국가의 청소년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제간의 유기적 연계·협력 부족으로 정책 영역에 중복 시대와 사각시대가 발생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정책으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원화된 청소년행정조직을 통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과거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던 청소년 행정조직을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이제 기존의 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정책집행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가 공공정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새로 출범한 「청소년위원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한 축으로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청소년 정책을 펼쳐 나갈 제도적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제 2 장 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반성

1980년대 후반 이후 국가 청소년 정책이 '보호·규제·단속 중심'에서 '육성·지원 중심'으로 바뀌면서 청소년 정책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었다.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책영역 또한 점점 다양화·복잡화·전문화되어 왔다. 199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 관련 중앙 행정기구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된 이후에도 각각의 고유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추진해 온 청소년 육성정책의 주요 성과로 청소년 현장의 개정,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수립, 그리고 제3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는 청소년을 하나의 사회구성원인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를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 밖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주요 3법의 제(개)정 등 법령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영역의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청소년사업지원 및 기금조성 확충과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단체의 확대, 청소년 국제교류협정 체결국 확대 등 청소년활동 기반과 여건을 대폭 확충하고 개선해 왔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추진해 온 청소년 보호정책의 성과도 높아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즉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청소년보호를 정부차원의 주요 정

책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도입과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치를 통하여 청소년 성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에는 소극적 보호정책에서 적극적 보호정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위험노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복지 및 인권보호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이 항상 일관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정책 집행기관의 이원화로 육성과 보호라는 두 개의 축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청소년 정책의 집행에 있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청소년위원회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가고자 한다.

제3장 청소년 정책의 전망 -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지향하며 -

「청소년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기 반성적 성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청소년은 물론

모든 청소년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전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키는 통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를 세밀하게 재정비하여 청소년 정책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 통합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정책 현장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청소년 정책의 정제성을 확립하고, 「청소년위원회」의 독자적 정책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추진체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정책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국가 공공정책으로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① 국가 청소년 정책의 비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2005년 5월 청소년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새롭게 수립된 '통합적 청소년 정책의 비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 정책에서는 청소년기를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주체적인 삶의 한 기간으로 인식하고, 「푸른 성장」을 국가 청소년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1) 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청소년 정책, (2) 꿈, 희망,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정책, (3) 청소년, 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을 국가 청소년 정책의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청소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 정책비전에 따른 국가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크게 (1)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 다양한 활동기회 보장, (3) 청소년 참여·인권 증진, (4)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등으로 설정하였다. 각 정책목표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가정이나 학교 등 보호망을 이탈하거나, 유해환경 접촉, 범죄, 인권침해 등 위험에 노출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성공적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며, 위기청소년의 요구수준에 부합되는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위기청소년의 현황, 요구, 인적·물적 자원 등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제(CYS-Net)를 만들고, 24시간 상담·구조·치료·자활 등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 상담·가출신고전화(1588-0924) 등 여러 종류의 청소년 긴급전화를 청소년전화 '1388'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둘째,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체계화를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특성 및 경로·보호기간 별 상황에 대응하는 보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시설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중증 위기청소년 치료·재활을 위한 「국립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위기(가능)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보호망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과 관련법·제도 정비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설·기관 중심의 단편적 보호·지원 정책으로는 위기청소년의 수준과 필요에 따른 통합적 서비스의 지원과 정상생활로의 복귀가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위기청소년의 정상생활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Youth Companion Program) 운영, 청소년상담서비스 확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상담 활성화, 위기청소년의 효율적 보호·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 다양한 활동기회 보장

청소년들이 21세기 디지털·글로벌·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증가되는 여가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양질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도록 돕고자 한다. 3I's(Information, Infrastructure, Incentive) 운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의 3요소(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전문화·특성화·고급화하여 지속적인 신규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전문화·특성화시설 확충, 지역사회의 가용시설(도서관, 박물관, 공공시설, 문화센터, 방과 후 학교시설 등) 활용도 증진, 청소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 청소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한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립시설의 전문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직무연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함양하며, '청소년활동종합정보망(www.all4youth.net)'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방과 후 청소년활동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위원회는 부모의 맞벌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홀로 남아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적 결핍 보충, 비행·범죄 예방, 사교육비 절감, 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효과를 얻기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문화·체육 시설, 청소년공부방 등)을 연계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또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일반형,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살핌, 비행노출 예방의 기능을 강화한 지원형, 일반형과 지원형을 혼합한 혼합형 등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사업평가 및 교육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과 지역차원의 연계협력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5년에는 46개 지역이 선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창의적 청소년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서시범학교 운영(200개교) 및 소외청소년 도서지원(260개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책임기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생적인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동아리 경진대회 등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별로 특색 있는 청소년축제 개발을 지원하고, 8개 시·도 30개 권역에 '청소년 문화 Zone'을 운영하는 한편, 청

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정보망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간 청소년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청소년행사를 개최하며, 해외교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지 교민회와 종교단체를 통한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모국초청 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제교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와 정보자료의 축적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소년 참여·인권 증진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참여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인권을 신장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청소년 정책 의제 설정과 대안창출을 위한 최고시스템으로 제도화하였으며, 청소년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에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시설에서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폭력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청소년 비즈스쿨, 모의 창업게임, 비즈니스캠프 운영 등 다양한 체험중심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단체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립능력 함양 프로그램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4. 청소년의 성장환경 개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매체환경의 역기능 심화, 향락산업의 팽창과 흡연인구의 저연령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위험 상존 등 청소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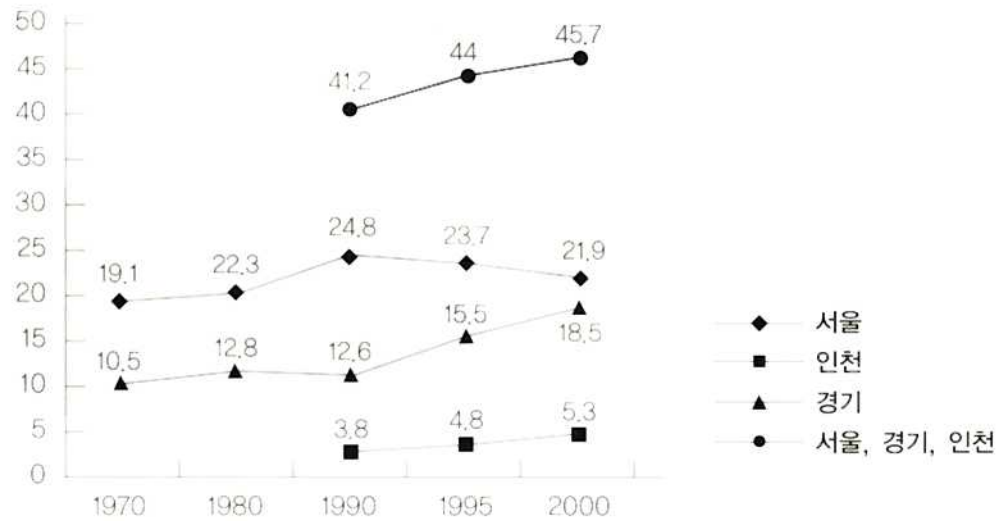
첫째,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도시 개발시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 추진, 취약지역 대상 중점 점검·단속 실시, 청소년 유해업소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확대 운영,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YP(Youth Patrol) 프로그램 등 청소년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다.

둘째,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전 매체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인터넷·방송·간행물·영상물 등 매체별 전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매체의 비판적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학부모 및 청소년대상 미디어교육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게임중독·사이버범죄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 예방과 치료사업을 전개하고, 청소년 사이버윤리척도의 보완과 평가를 통해 관련업계의 자율규제 활동을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교육청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전개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등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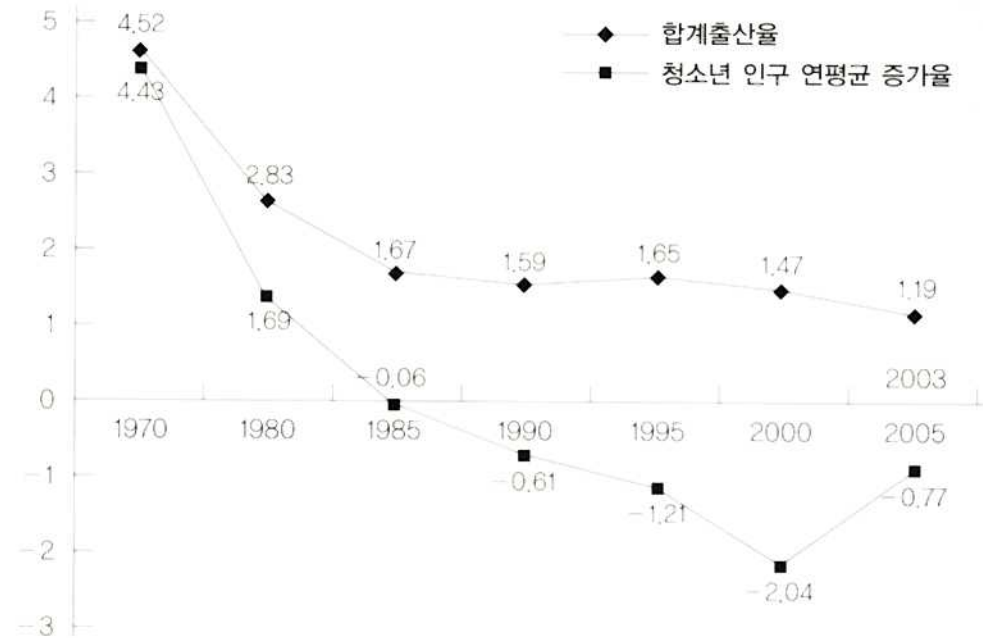
제2부 청소년 인구

1990년 이후부터 서울지역 청소년인구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포함) 청소년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 현재 수도권 청소년 인구의 비율은 45.7%에 달하여 수도권 지역의 불균형적인 인구집중이 청소년 인구상황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청소년 인구 구성비(%)

청소년 인구는 1980년~1985년의 경우 -0.1%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2000년에는 -2.0%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03년 1.19로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과 청소년 인구 연평균 증가율



제 1 장 청소년 인구 및 인구동태

1. 청소년 인구현황

2004년 7월1일 현재 9~24세의 청소년인구는 1,12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589만명, 여자 533만명이며 성비는 110.6이다. 연령별은 23세가 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이 22세와 24세가 각각 7.4%, 7.3%를 차지하고, 15세~17세는 5.4%로 낮은 수준이다. 각 연령별 성비는 10세의 성비가 114.9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11세 114.3으로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는 낮아져 22세부터 24세까지는 105~10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1-1〉 연령별 청소년 인구(2004)

(단위: 만 명)

연령	청소년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성비
청소년인구	11,218,445	100.00	5,892,480	5,325,965	110.6
9세	702,745	6.26	374,527	328,218	114.1
10-14세	3,410,958	30.40	1,816,184	1,594,774	113.9
10세	708,264	6.31	378,698	329,566	114.9
11세	708,633	6.32	377,909	330,724	114.3
12세	695,736	6.20	369,484	326,252	113.3
13세	666,314	5.94	354,617	311,697	113.8
14세	632,011	5.63	335,476	296,535	113.1
15-19	3,116,530	27.78	1,636,580	1,479,950	110.6
15세	609,917	5.44	324,768	285,149	113.9
16세	605,773	5.40	318,902	286,871	111.2
17세	609,026	5.43	319,561	289,465	110.4
18세	629,080	5.61	328,184	300,896	109.1
19세	662,734	5.91	345,165	317,569	108.7
20-24	3,988,212	35.55	2,065,189	1,923,023	107.4
20세	717,846	6.40	375,725	342,121	109.8
21세	775,253	6.91	403,981	371,272	108.8
22세	826,197	7.36	428,578	397,619	107.8
23세	850,293	7.58	436,816	413,477	105.6
24세	818,623	7.30	420,089	398,534	105.4

자료: 통계청 「청년인구 특별추계」 2005

2. 청소년 인구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구(9~24세)는 1960년에 전체인구의 31.8%인 796만명에서 증가하여 1980년에는 전체인구의 36.8%인 1,401만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후에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12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20.8%인 1,024만명으로 낮아지며, 2030년에는 더욱 낮아져 13.2%인 65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평균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8%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85~1990년에는 1%이하로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에도 서서히 낮아져 2010~2015년에는 0.2%, 2020~2025년에는 인구증가율이 감소상태인 -0.1%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청소년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에는 2.8%로 총인구증가율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6.25전쟁이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태어난 인구가 청소년연령층에 도달한 1965~1970년에는 4.4%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후 1975~1980년 사이에는 1.7%로 총인구증가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청소년연령층을 벗어난 1980~1985년의 경우 -0.1%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2000년에는 -2.0%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향후에는 청소년인구 감소율이 2000~2005년 -0.8%, 2020~2025년 -2.9%로 큰 감소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는 -1%~-2%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인구 전망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연평균증가율	청소년인구	구성비	연평균증가율
1960	25,012,374	-	7,956,903	31.8	-
1965	28,704,674	2.79	9,120,576	31.8	2.77
1970	32,240,827	2.35	11,329,714	35.1	4.43
1975	35,280,725	1.82	12,885,563	36.5	2.61
1980	38,123,775	1.56	14,014,932	36.8	1.69
1985	40,805,744	1.37	13,974,697	34.2	-0.06
1990	42,869,283	0.99	13,553,357	31.6	-0.61
1995	45,092,991	1.02	12,751,383	28.3	-1.21
2000	47,008,111	0.84	11,501,436	24.5	-2.04
2005	48,294,143	0.54	11,064,987	22.9	-0.77
2010	49,219,537	0.38	10,235,558	20.8	-1.55
2015	49,802,615	0.24	9,459,379	19.0	-1.56
2020	49,956,093	0.06	8,252,020	16.5	-2.69
2025	49,835,930	-0.05	7,130,366	14.3	-2.88
2030	49,329,456	-0.20	6,504,851	13.2	-1.82
2035	48,290,883	-0.42	6,091,439	12.6	-1.30
2040	46,743,259	-0.65	5,726,458	12.3	-1.23
2045	44,746,631	-0.87	5,355,948	12.0	-1.33
2050	42,347,690	-1.10	4,859,726	11.5	-1.9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3. 청소년 인구의 지역별 추이

청소년 인구추이를 보면 1990년에 최고에 달했다가 이후 2000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다른 시·도는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인천은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보면 1970~2000년 사이의 청소년 인구는 3.5% 증가하였는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포함) 청소년 인구증가는 무려 60.3%에 달하여 수도권 지역으로의 불균형적인 인구집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지역별 청소년 인구추이(9~24세) (단위: 천명, %)

지역	1970		1980		1990		1995		2000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청소년 인구	10,894	100.0	13,676	100.0	13,713	100.0	12,505	100.0	11,270	100.0
서울	2,078	19.1	3,054	22.3	3,395	24.8	2,967	23.7	2,466	21.9
부산	672	6.2	1,156	8.5	1,242	9.1	1,138	9.1	951	8.4
대구	-	-	-	-	745	5.4	727	5.8	641	5.7
인천	-	-	-	-	516	3.8	599	4.8	601	5.3
광주	-	-	-	-	411	3.0	404	3.2	375	3.3
대전	-	-	-	-	350	2.6	386	3.1	369	3.3
울산	-	-	-	-	-	-	-	-	251	2.2
경기	1,138	10.5	1,757	12.8	1,721	12.6	1,941	15.5	2,088	18.5
강원	602	5.5	653	4.8	504	3.7	413	3.3	353	3.1
충북	491	4.5	525	3.8	443	3.2	395	3.2	363	3.2
충남	974	8.9	1,091	8.0	671	4.9	497	4.0	435	3.9
전북	826	7.6	853	6.2	710	5.2	565	4.5	467	4.1
전남	1,353	12.4	1,402	10.3	841	6.1	572	4.6	454	4.0
경북	1,580	14.5	1,834	13.4	876	6.4	718	5.7	638	5.7
경남	1,067	9.8	1,178	8.6	1,109	8.1	1,035	8.3	697	6.2
제주	113	1.0	173	1.3	179	1.3	149	1.2	122	1.1

주: 총조사인구로서 추계인구와는 시점 등의 차이로 일치하지 않음
 자료: 1)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1970, 1980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1995, 2000

제 2 장 청소년 인구 및 인구동태

1. 인구동태개황

인구동태 통계란 인간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동 등과 같이 인구를 변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인구동태 사건을 집계한 통계로서, 조출생률이나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합계출산율, 평균연령, 평균수명, 평균조혼연령 등 다양한 인구동태지표를 이끌어 낸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1970년에는 31.2에서 1990년 15.4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1995년에 16.0으로 증가한 후 최근 다시 감소하여 2003년에는 10.2를 기록하고 있다.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은 1970년 8.0에서 매년 약간씩 낮아져 2003년 5.1까지 낮아졌다. 자연인구증가율(조출생률-조사망률)은 조출생률과 마찬가지로 1970년 23.2에서 1990년 9.6 수준까지 감소한 후 약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3년 5.1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자 1명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에서 2003년에는 1.1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평균수명은 1971년에 남자 59.0세, 여자 66.1세에서 2002년에는 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높아졌다.

조혼인율은 1970년에 9.2에서 증가하여 1980년에 10.6로 최고수준을 보인 후 감소하여 2004년에는 6.4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조혼연령은 1972년에 남자 26.7세, 여자 22.6세였으나, 이후 만혼화(晩婚化)가 진행되면서 2004년 현재 남자 30.6세, 여자 27.5세를 나타내고 있다.

조이혼율은 1970년대 초반에 0.4에서 차츰 증가하여 1990년에 1.1이었으나, 1990년 이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져 2004년에 2.9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의 평균연령은 1970년에 23.6세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29.5세, 2004년에는 35.0세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2-2-1〉 주요 인구동태율 추이

구 분	단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인구동태율】							
조 출 생 률	%	31.2	22.7	15.4	16.0	13.4	10.2('2003년)
조 사 망 률	%	8.0	7.3	5.8	5.4	5.2	5.1('2003년)
자 연 증 가 율	%	23.2	15.4	9.6	10.6	8.2	5.1('2003년)
조 혼 인 율	%	9.2	10.6	9.3	8.7	7.0	6.4
조 이 혼 율	%	0.4	0.6	1.1	1.5	2.5	2.9
합 계 출 산 율	명	4.5	2.8	1.6	1.7	1.5	1.2('2003년)
【각 중 연 령】							
평 균 연 령	세	23.6	25.9	29.5	31.2	33.1	35.0
남 자	세	22.9	25.0	28.5	30.1	31.9	33.8
여 자	세	24.3	26.9	30.6	32.3	34.3	36.2
평 균 수 명	세	62.3	66.2	71.7	73.5	75.6	77.0
남 자	세	59.0	62.3	67.7	69.6	71.7	73.4
여 자	세	66.1	70.5	75.9	77.4	79.2	80.4
평 균 초 혼 연 령							
남 자	세						
여 자	세						

자료 : 1) 통계청 「2003 인구동태연보(출생사망)」 2004
 2) 통계청 「2004 인구동태연보(혼인이혼)」 2005
 3)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4) 통계청 「2002년 생명표」 2004

2. 출생

가.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은 1970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1985년에 1.67명으로 대체출산력 수준(2.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3년에 1.1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15~19세는 1970년에 19.3명에서 2003년에 2.5명으로, 20~24세는 동 기간에 193.1명에서 23.7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주출산계층인 25~29세는 1970년에 320.6명에서 1985년에 158.9명까지 감소하다가 1995년에 177.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3년에는 112.3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30~44세에서는 1970년에 각각 5세 간격별로 205.7명, 105.9명, 46.0명 수준에서 1985년에 각각 41.0명, 8.8명, 2.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 다소 증가하여 2003년에 79.9명, 17.3명, 2.5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대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의 교육 및 고용기회 증가로 20대 혼인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인한다. 또한 30대와 40대 전반 연령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꾸준한 혼인연령의 상승에 따라 출산이 늦어지는 데 기인한다.

〈표 2-2-2〉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단위 : 명)

연 도	합 계 출산율 (여자1명당)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4.53	19.3	193.1	320.6	205.7	105.9
1980	2.83	12.9	141.4	244.1	106.0	30.6	8.5	2.0
1985	1.67	10.1	118.5	158.9	41.0	8.8	2.2	0.5
1990	1.59	4.2	83.2	169.4	50.5	9.6	1.5	0.2
1995	1.65	3.6	62.9	177.1	69.6	15.2	2.3	0.2
2000	1.47	2.5	39.0	150.6	84.2	17.4	2.6	0.2
2003	1.19	2.5	23.7	112.3	79.9	17.3	2.5	0.2

자료 : 통계청 「2003 인구동태통계연보」 2004

나. 지역별 출생아 구성비

2003년의 지역별 출생아 구성비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개 대도시의 출생아 구성비는 총 출생아의 45.7%로 인구 구성비 47.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출생아 구성비는 50.1%로서 인구 구성비 47.6%보다 2.3%p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밀집된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3〉 지역별 출생아 구성비 (단위 : %)

지 역	출 생 아 구 성 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22.6	24.9	26.0	23.3	20.8	20.4
부 산	9.1	8.7	8.6	7.4	6.4	6.1
대 구	-	4.6	5.1	5.4	5.1	5.0
인 천	-	4.1	5.4	5.8	5.4	5.4
광 주	-	-	2.7	3.2	3.3	3.2
대 전	-	-	2.4	3.0	3.1	3.2
울 산	-	-	-	-	2.5	2.4
경 기	13.0	13.6	17.7	19.8	22.1	24.3
강 원	4.2	4.0	2.9	2.7	3.0	2.9
충 북	3.5	3.2	2.7	2.9	3.1	3.0
충 남	7.1	6.6	3.2	3.2	3.9	3.8
전 북	6.1	4.8	3.7	3.8	3.9	3.7
전 남	11.5	8.4	4.2	3.9	4.1	3.7
경 북	12.7	6.8	5.6	5.2	5.5	5.1
경 남	8.9	9.1	8.8	9.1	6.5	6.5
세 주	1.4	1.1	1.0	1.2	1.3	1.3
대 도시	31.7	42.3	50.2	48.1	46.6	45.7
수 도 권	35.6	42.6	49.1	48.9	48.3	50.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4

다. 출생성비

출생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80년대 중반이후 높아지기 시작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1990년에 116.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는 다소 떨어진 108.7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별로 보면, 첫째아는 199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05 내외의

정상성비(103~107)를 유지하였으나, 둘째아는 1990년까지 계속 높아지다

〈표 2-2-4〉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총 출생성비	105.3	109.4	116.5	113.2	110.2	108.7
첫째아	106.0	106.0	108.5	105.8	106.2	104.9
둘째아	106.5	107.8	117.0	111.7	107.4	107.0
셋째아 이상	108.3	134.3	192.8	180.2	143.9	136.6

자료: 통계청

〈표 2-2-5〉 지역별 출생성비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 수)

지역	출생성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전국	105.3	109.4	116.5	113.2	110.2	108.7
서울	106.3	108.8	113.3	110.8	108.9	106.5
부산	105.4	109.2	118.4	117.2	112.8	109.7
대구	-	121.0	129.7	116.9	113.4	112.5
인천	-	108.4	111.9	112.6	108.7	106.3
광주	-	-	113.3	107.5	110.0	112.1
대전	-	-	122.7	114.4	107.2	107.8
울산	-	-	-	-	112.6	115.6
경기	105.7	106.5	111.3	111.5	109.4	107.6
강원	103.2	108.7	113.0	112.3	110.7	107.6
충북	106.3	110.0	117.0	114.7	112.5	109.0
충남	104.6	108.9	116.6	111.5	109.9	108.3
전북	104.2	107.7	113.8	112.3	108.1	106.3
전남	104.9	105.8	114.1	111.7	109.3	109.9
경북	105.4	120.0	130.7	118.3	113.6	110.9
경남	105.2	109.9	124.7	119.2	112.7	113.7
제주	103.5	108.1	118.8	112.0	105.6	110.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4

가 이후 낮아져 2003년에는 107.0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1990년에 192.8을 기록한 이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03년 현재 136.6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출생성비를 보면 1980년에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출생성비를 보였으나 1985년부터 부산, 대구, 경북, 경남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출생성비가 높은 지역은 울산, 경남, 대구의 순이고, 출생성비가 낮은 지역은 인천, 전북의 순이다.

3. 혼인

가. 청소년의 혼인상태별 분포

2000년 11월 1일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인구 754만명 중에서 미혼인구는 727만 1천명(96.4%), 유배우인구는 26만 4천명(3.5%)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체로 보면 미혼비율과 유배우비율이 199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4세에서는 남녀 모두 미혼비율의 증가와 유배우비율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15~19세 인구의 미혼비율은 99%를 상회하고 있고, 20~24세 여자청소년의 경우 미혼비율은 1990년의 80.5%에서 1995년에는 82.4%, 2000년에는 89.1%로 늘어나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1990년대 이후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2-6〉 청소년의 혼인상태별 인구 (단위: 천명, %)

구 분	1990				1995				2000			
	계	미혼	유배우	기타	계	미혼	유배우	기타	계	미혼	유배우	기타
전 국	8,845 (100.0)	8,339 (94.3)	504 (5.7)	3 (0.0)	7,718 (100.0)	7,271 (94.2)	444 (5.8)	3 (0.0)	7,540 (100.0)	7,271 (96.4)	264 (3.5)	5 (0.1)
15~19	4,449 (100.0)	4,435 (99.7)	14 (0.3)	0 (0.0)	3,691 (100.0)	3,672 (99.5)	19 (0.5)	0 (0.0)	3,692 (100.0)	3,672 (99.5)	19 (0.5)	0 (0.0)
20~24	4,396 (100.0)	3,904 (88.8)	490 (11.1)	3 (0.0)	4,027 (100.0)	3,599 (89.4)	425 (10.6)	3 (0.0)	3,848 (100.0)	3,599 (93.5)	245 (6.4)	4 (0.1)
남 자	4,561 (100.0)	4,478 (98.2)	83 (1.8)	1 (0.0)	3,970 (100.0)	3,884 (97.8)	86 (2.1)	1 (0.0)	3,941 (100.0)	3,884 (98.5)	56 (1.4)	1 (0.1)
15~19	2,267 (100.0)	2,265 (99.9)	2 (0.1)	0 (0.0)	1,912 (100.0)	1,907 (99.7)	5 (0.3)	0 (0.0)	1,913 (100.0)	1,907 (99.6)	6 (0.3)	0 (0.0)
20~24	2,294 (100.0)	2,213 (96.5)	81 (3.5)	1 (0.0)	2,059 (100.0)	1,977 (96.0)	81 (3.9)	1 (0.0)	2,028 (100.0)	1,977 (97.5)	50 (2.5)	1 (0.0)
여 자	4,284 (100.0)	3,861 (90.1)	421 (9.8)	2 (0.0)	3,747 (100.0)	3,387 (90.4)	358 (9.6)	2 (0.0)	3,598 (100.0)	3,387 (94.1)	208 (5.8)	3 (0.1)
15~19	2,182 (100.0)	2,170 (99.5)	12 (0.5)	0 (0.0)	1,779 (100.0)	1,765 (99.3)	14 (0.8)	0 (0.0)	1,778 (100.0)	1,765 (99.3)	13 (0.7)	0 (0.0)
20~24	2,102 (100.0)	1,691 (80.5)	409 (19.5)	2 (0.0)	1,968 (100.0)	1,622 (82.4)	344 (17.5)	2 (0.0)	1,820 (100.0)	1,622 (89.1)	195 (10.7)	3 (0.2)

주: 기타는 사별, 이혼, 미상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0, 1995, 2000

나. 연령별 혼인구성비

연간 혼인진수 구성비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 남자의 경우, 1985년에 58.6%에서 2004년 36.5%로 감소한 반면, 30대 전반의 혼인은 1985년에 12.2%에서 2004년에 33.1%로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1985년에는 20대 전반의 혼인이 55.7%로 전체 혼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점점 감소하여 2004년에는 17.3%를 나타낸 반면, 20대 후반의 혼인은 1985년 29.0%에서 2004년에는 47.1%로 나타났다.

〈표 2-2-7〉 연령별 혼인구성비 (단위: %)

연 령	혼 인 연 도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4
남 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1.3	0.8	0.7	0.6	0.6	0.6	0.4
20~24	21.6	14.7	11.7	9.3	8.0	7.5	5.2
25~29	58.6	59.1	54.7	52.5	50.3	48.9	36.5
30~34	12.2	18.5	22.1	23.6	25.3	26.8	33.1
35~39	2.7	3.3	5.5	6.9	7.4	7.6	10.1
40~44	1.3	1.5	2.2	3.1	3.7	3.8	5.9
45~49	0.8	0.9	1.3	1.6	1.9	2.0	4.0
50+	1.3	1.2	1.8	2.3	2.7	2.7	4.8
여 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8.2	4.5	3.3	2.7	2.6	2.5	1.6
20~24	55.7	48.5	40.6	31.4	27.5	25.8	17.3
25~29	29.0	37.3	42.2	48.0	49.1	49.4	47.1
30~34	3.7	5.9	7.4	8.9	10.2	11.5	17.2
35~39	1.4	1.8	3.4	4.4	5.0	5.1	6.6
40~44	0.8	0.9	1.5	2.4	2.9	3.0	4.8
45~49	0.5	0.5	0.8	1.1	1.4	1.5	3.1
50+	0.6	0.5	0.7	1.1	1.3	1.3	2.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 2005

4. 사망

가. 사인 구조 현황

2003년 총사망 245,817건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3,865건으로 전체 사망건수 중 1.6%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0~14세는 514건(13.3%), 15~19세는 1,242건(32.1%), 20~24세는 2,109건(54.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구조를 살펴보면,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이 27.6%, 자살 21.8%, 암(악성신생물)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망순위를 연령별로 보면 10~14세에서는 암(악성신생물)로 인한 사망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운수사고 16.7%, 자살 6.2%의 순이고, 15~19세는 운수사고가 32.0%로 가장 높고, 자살 21.3%, 암(악성신생물) 11.0% 순으로 나타났다. 20~24세에서도 운수사고가 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살 25.9%, 암(악성신생물) 10.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운수사고 및 자살 등의 사고사가 전체의 66.2%를 차지하여 전체 연령의 사고사 구성비 12.8% 보다 5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수 및 구성비

(단위: 명, %)

사망원인	총사망	청소년사망								
		구성비	계	구성비	10~14세	구성비	15~19세	구성비	20~24세	구성비
총 사망 건수	245,817	100.0	3,865	100.0	514	100.0	1,242	100.0	2,109	100.0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	5,426	2.2	56	1.4	9	1.8	15	1.2	32	1.5
경핵	3,331	1.4	30	0.8	2	0.4	10	0.8	18	0.9
암(악성신생물)	63,685	25.9	464	12.0	109	21.2	137	11.0	218	10.3
순환기계 질환	60,262	24.5	214	5.5	44	8.6	50	4.0	120	5.7
심장질환	17,188	7.0	122	3.2	21	4.1	33	2.7	68	3.2
뇌혈관 질환	36,495	14.8	80	2.1	23	4.5	13	1.0	44	2.1
호흡기계 질환	14,515	5.9	45	1.2	13	2.5	7	0.6	25	1.2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864	0.4	56	1.4	23	4.5	17	1.4	16	0.8
사망의 외인	31,558	12.8	2,560	66.2	233	45.3	870	70.0	1,457	69.1
운수사고	9,224	3.8	1,065	27.6	86	16.7	397	32.0	582	27.6
자살	10,932	4.4	844	21.8	32	6.2	265	21.3	547	25.9
미상	1,189	0.5	13	0.3	2	0.4	8	0.6	3	0.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4.

나. 국민의 평균수명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71년에 남자 58.99세, 여자 66.07세에서 1981년에 남자 62.28세, 여자 70.54세, 2002년에 남자 73.38세, 여자 80.44세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71년 보다 14세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 양호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자의 평균수명은 남자보다 상당히 높으며, 그 차이는 1971년에 7.09세, 1985년에 8.37세를 고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표 2-2-9〉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연도	1971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2
계	62.33	66.19	67.14	68.44	69.76	70.82	71.72	72.81	73.53	74.39	75.55	76.53	77.00
남자	58.99	62.28	63.21	64.45	65.78	66.84	67.74	68.76	69.57	70.56	71.71	72.84	73.38
여자	66.07	70.54	71.47	72.82	74.04	75.08	75.92	76.80	77.41	78.12	79.22	80.01	80.44
차이 (여-남)	7.09	8.26	8.25	8.37	8.26	8.25	8.18	8.04	7.84	7.56	7.51	7.17	7.06

자료: 통계청 「2002년 생명표」, 2004

5. 청소년인구의 이동

청소년인구의 시·도간 이동을 살펴보면 2000년 11월 1일 현재 10세 이상 청소년인구의 21.8%인 216만 7천명이 5년 전 거주지인 시·군·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부지역이 22.1%, 군부지역이 20.2%로 시부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동률이 군부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1995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 청소년 이동인구는 19.7% 감소하고 이동률은 2.2%p 낮아졌으며, 시부지역 거주 청소년의 이동률은 낮아지고 군부의 이동률은 높아졌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20~24세의 청소년이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다른 연령층의 청소년보다 높은 이동성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시부·군부간 이동성향을 보면 1995년과 비교하여 군부→군부, 시부→시부로의 이동을 큰 변화가 없으나, 군부→시부로의 이동이 준 대신 시부→군부로의 이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한 청소년인구는 조금씩 늘어나 1995~2000년에는 2만 2천명 가량이 되고 있다.

〈표 2-2-10〉 청소년의 지역별 이동인구

(단위: 천명)

현거주지	10세이상 청소년인구	이동인구				
		계	이동률	10~14세	15~19세	20~24세
전국	9,935	2,167	21.8	610	662	895
시부	8,239	1,824	22.1	523	548	754
군부	1,696	343	20.2	87	114	141
서울	2,192	500	22.8	130	139	231
부산	839	158	18.9	51	52	55
대구	567	123	21.7	39	38	47
인천	528	110	20.7	37	32	41
광주	333	84	25.1	22	27	34
대전	328	87	26.6	22	28	37
울산	219	39	17.7	13	11	15
경기	1,834	491	26.8	159	141	190
강원	310	66	21.3	16	22	28
충북	320	68	21.3	14	23	32
충남	383	88	23.0	20	30	37
전북	410	63	15.4	16	21	26
전남	393	59	14.9	16	21	22
경북	562	110	19.5	20	40	50
경남	609	106	17.4	29	33	44
제주	106	15	14.0	4	5	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0

〈표 2-2-11〉 청소년의 시·군간 인구이동(10~24세) (단위: 천명, %)

구분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구성비
전국	2,891	100.0	2,867	100.0	2,699	100.0	2,167	100.0
시부 → 시부	1,296	44.8	1,595	55.6	1,970	73.0	1,538	71.0
시부 → 군부	221	7.6	174	6.1	154	5.7	287	13.2
군부 → 시부	1,194	41.3	971	33.8	510	18.9	265	12.2
군부 → 군부	172	5.9	120	4.2	50	1.9	55	2.6
기타	4	0.1	7	0.2	15	0.5	22	1.0
피상	4	0.1	-	-	0	0.0	0	0.0

주: 1) 이요는 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2) 기타는 5년전 거주지가 모한 또는 외국인 경우임
 3) 현거주지가 1990~1995년의 군부는 시부로, 1995~2000년의 농부는 시부로, 읍면부는 군부로 집계됨.
 자료: 1)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1980, 1985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0, 1995, 2000

제 3 장 가족구성 및 변동

1. 가족구성 개황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는 가구이다. 가구는 혼자서 또는 2명 이상이 모여서 취사나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개념과 똑같지는 않지만, 가구구성원이 생활을 영위하고, 함께 거주하고, 지출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표 2-3-1〉 연도별 가구수 및 증가율(1970~2000)

연도	총가구수	일반가구수	집단가구수	평균가구원수(명)	연평균가구증가율(%)
1970	5,856,901	5,792,983	63,918	5.4	-
1975	6,754,257	6,647,778	106,479	5.1	2.89
1980	7,992,968	7,969,201	23,767	4.7	3.43
1985	9,598,796	9,571,361	27,435	4.2	3.73
1990	11,370,160	11,354,540	15,620	3.8	3.45
1995	12,974,194	12,958,181	16,013	3.4	2.67
2000	14,326,224	14,311,807	14,417	3.2	2.00

주: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대에는 1인 단독가구를 추정(216,706)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통계청

가구를 혈연관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혈연가족관계 가구는 83.3%,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1.1%, 단독으로 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15.5%, 집단가구가 0.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구의 대부분이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단위인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출산력저하에 따라 가구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소가족화, 친족가구의 비율감소, 핵가족비율의 증가, 1인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가구가 분화되어 가구증가 속도는 인구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1995~2000년의 연평균 가구증가율은 2.07%로 인구증가율보다 약 3배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가구원수는 1970년 5.4명에서 2000년에 3.2명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2. 가구수 및 가구원수

2000년 11월 1일 현재 가구수(일반가구)는 1,431만 2천가구로 1995년의 1,295만 8천가구보다 135만 4천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핵가족화 현상과 이혼, 1인가구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1인가구가 1995년에 164만 2천가구에서 2000년에 222만 4천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가구에 대한 구성비도 12.7%에서 15.5%로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95년에 3.3명에서 2000년에는 3.1명으로 0.2명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구원수별 가구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소규모 가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일반가구 중 4인가구가 가장 많은 444만 7천 가구로 총가구의 31.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인가구는 20.9%, 2인가구는 19.1%인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1995년에 비해 오히려 5%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은 4인가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인, 2인, 1인, 5인가구 순이었고, 읍면지역은 2인가구가 가장 많고 4인, 1인, 3인가구의 순이었다.

〈표 2-3-2〉 가구유형별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1995년		2000년		증감률(%)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전 국					
총 가 구	12,991,304	100.0	14,391,374	100.0	10.8
일 반 가 구	12,958,181	99.8	14,311,807	99.4	10.4
(혈 연 가 구)	(11,132,785)	(85.9)	(11,928,143)	(83.3)	(7.1)
(1 인 가 구)	(1,642,406)	(12.7)	(2,224,433)	(15.5)	(35.4)
(비 혈 연 가 구)	(182,990)	(1.4)	(159,231)	(1.1)	(▲13.0)
집 단 가 구	16,013	0.1	14,417	0.1	▲10.0
외 국 인 가 구	17,110	0.1	65,150	0.5	280.8
동 부					
총 가 구	10,057,465	100.0	11,290,609	100.0	12.3
일 반 가 구	10,031,978	99.8	11,229,476	99.4	11.9
(혈 연 가 구)	(8,699,394)	(86.7)	(9,459,798)	(84.2)	(8.7)
(1 인 가 구)	(1,185,514)	(11.8)	(1,642,618)	(14.6)	(38.6)
(비 혈 연 가 구)	(147,070)	(1.5)	(127,060)	(1.1)	(▲13.6)
집 단 가 구	11,114	0.1	9,116	0.1	▲18.0
외 국 인 가 구	14,373	0.1	52,017	0.5	261.9
읍 면 부					
총 가 구	2,933,839	100.0	3,100,765	100.0	5.7
일 반 가 구	2,926,203	99.7	3,082,331	99.4	5.3
(혈 연 가 구)	(2,433,391)	(83.2)	(2,468,345)	(80.1)	(1.4)
(1 인 가 구)	(456,892)	(15.6)	(581,815)	(18.9)	(27.3)
(비 혈 연 가 구)	(35,920)	(1.2)	(32,171)	(1.0)	(▲10.4)
집 단 가 구	4,899	0.2	5,301	0.2	8.2
외 국 인 가 구	2,737	0.1	13,133	0.4	379.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5, 2000

〈표 2-3-3〉 가구원수별 현황

(단위: 천가구, %)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국								
2000	14,314	2,225	2,731	2,988	4,447	1,443	345	135
(비율)	(100.0)	(15.5)	(19.1)	(20.9)	(31.1)	(10.1)	(2.4)	(0.9)
1995	12,957	1,643	2,184	2,636	4,110	1,667	496	221
(비율)	(100.0)	(12.7)	(16.9)	(20.3)	(31.7)	(12.9)	(3.8)	(1.7)
동지역								
2000	11,231	1,643	1,890	2,420	3,778	1,159	252	89
(비율)	(100.0)	(14.6)	(16.8)	(21.5)	(33.7)	(10.3)	(2.3)	(0.8)
1995	10,032	1,186	1,455	2,089	3,458	1,329	367	148
(비율)	(100.0)	(11.8)	(14.5)	(20.8)	(34.5)	(13.2)	(3.7)	(1.5)
읍면지역								
2000	3,083	582	841	568	669	284	93	46
(비율)	(100.0)	(18.9)	(27.3)	(18.4)	(21.7)	(9.2)	(3.0)	(1.5)
1995	2,925	457	729	547	652	338	129	73
(비율)	(100.0)	(15.6)	(24.9)	(18.7)	(22.3)	(11.6)	(4.4)	(2.5)

주: 각 통계표의 가구는 일반가구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5, 2000

3. 가구의 세대구성

2000년 11월 1일 현재 가구의 세대구성 유형을 보면 총가구(일반가구만을 지칭함)중 2세대가구가 6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 15.5%, 1세대가구 14.2%, 3세대가구 8.2%, 비혈연가구 1.1%, 4세대 이상 가구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동지역에서는 2세대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 1세대가구, 3세대가구, 비혈연가구, 4세대이상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구성비면에서 보면 1995년에 비해 2, 3세대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1세대와 1인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읍면지역은 동지역과 거의 비슷하나 동지역보다 2세대가구 비율이 낮은 반면, 1세대가구, 1인가구, 3세대가구, 4세대 이상 가구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가구와 1인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

〈표 2-3-4〉 세대수별 가구현황

(단위: 천가구, %)

구분	1995년		2000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전국	12,958	100.0	14,313	100.0
1세대가구	1,640	12.7	2,034	14.2
2세대가구	8,200	63.3	8,696	60.8
3세대가구	1,266	9.8	1,177	8.2
4세대이상가구	26	0.2	22	0.2
1인가구	1,643	12.7	2,225	15.5
비혈연가구	183	1.4	159	1.1
동지역	10,032	100.0	11,230	100.0
1세대가구	1,060	10.6	1,352	12.0
2세대가구	6,720	67.0	7,237	64.5
3세대가구	904	9.0	858	7.6
4세대이상가구	15	0.1	13	0.1
1인가구	1,186	11.8	1,643	14.6
비혈연가구	147	1.5	127	1.1
읍면지역	2,926	100.0	3,083	100.0
1세대가구	580	19.8	682	22.1
2세대가구	1,480	50.6	1,459	47.3
3세대가구	362	12.4	319	10.4
4세대이상가구	11	0.4	9	0.3
1인가구	457	15.6	582	18.9
비혈연가구	36	1.2	32	1.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5, 2000

통합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가구가 급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3세대가구와 4세대가구 구성비가 동지역보다 높은 것은 아직도 읍면지역에서는 동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의 전체가구 중 부부만 사는 가구는 14.8%이고, 편부모와 미혼자녀가 사는 가구는 9.4%, 부부와 미혼자녀가 사는 가구는 57.8%로 나타나 총가구 중 핵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비율은 82.0%로 나타났다. 동지역, 읍면지역 모두 2세대가구 비율이 높으나, 읍면지역 노인인구 증가로 읍면지역의 부부가구 구성비가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4. 가족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이혼은 1970년에 1만 2천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13만 9천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자립력의 증가, 전통적 윤리관의 쇠퇴 등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이혼구성비를 보면 남자는 1985년에 30대 전반 연령층이 가장 높았으나, 2004년에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는 1985년에 20대 후반 연령층이 가장 높았으나 점차 상승하여 2004년에는 30대 전·후반이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였다.

평균이혼연령은 1985년에 남자 35.6세, 여자는 31.3세에서 2004년에는 남자 41.8세, 여자 38.3세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표 2-3-5〉 연령별 이혼구성비 및 평균 이혼연령

(단위: %, 세)

연령	연도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4
남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0.1	0.1	0.0	0.0	0.0	0.1	0.0
20~24	4.0	2.7	2.1	1.7	1.6	1.6	1.2
25~29	21.7	18.0	12.4	9.9	9.8	9.7	6.4
30~34	26.5	28.9	24.1	19.3	18.9	19.1	17.3
35~39	20.7	21.1	25.4	25.1	24.2	23.1	21.3
40~44	13.2	13.9	16.7	20.1	20.9	21.1	21.4
45~49	7.2	7.9	9.9	11.4	11.7	12.4	15.7
50~54	2.9	3.7	5.3	6.3	6.6	6.8	8.0
55~59	1.7	1.8	2.3	3.5	3.5	3.5	4.4
60세이상	2.0	1.9	1.9	2.5	2.7	2.8	4.1
평균이혼연령	35.6	36.8	38.4	39.8	40.0	40.1	41.8
여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0.9	0.6	0.4	0.3	0.3	0.3	0.3
20~24	15.5	11.2	7.8	5.8	5.4	5.4	4.0
25~29	32.4	29.5	21.9	18.5	17.8	17.7	13.0
30~34	23.5	28.0	27.0	22.8	22.7	22.4	22.1
35~39	13.8	15.8	22.5	24.4	23.8	22.6	21.3
40~44	7.7	7.8	11.1	15.6	16.6	17.3	18.8
45~49	3.5	4.0	5.2	6.8	7.2	7.9	11.5
50~54	1.5	1.8	2.5	3.3	3.5	3.6	5.0
55~59	0.7	0.8	1.0	1.6	1.6	1.7	2.3
60세이상	0.5	0.5	0.6	0.9	1.0	1.0	1.7
평균이혼연령	31.3	32.7	34.6	36.1	36.4	36.6	38.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 2005

〈표 2-3-6〉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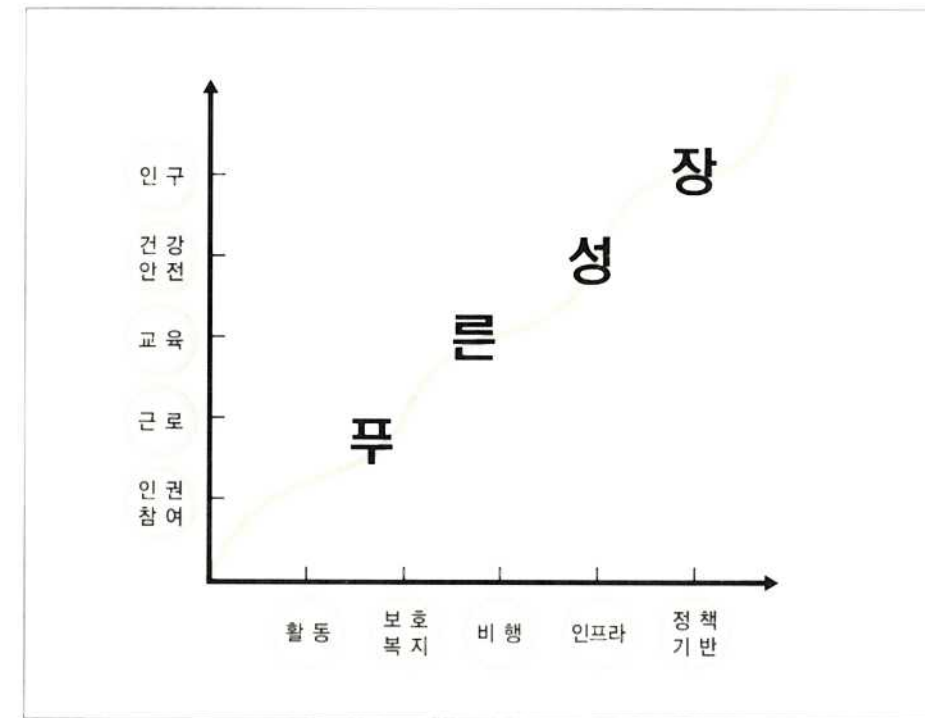
(단위: %, 년)

동 거 기 간	연 도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년 미만	41.5	39.5	32.6	29.5	29.2	29.3	25.2
5 ~ 9년	30.6	29.1	25.1	23.3	22.8	22.3	22.9
10 ~ 14년	15.7	18.2	20.6	19.3	18.9	18.7	18.9
15 ~ 19년	7.4	7.9	13.1	15.5	15.6	15.3	14.7
20년 이상	4.7	5.3	8.2	12.4	13.5	14.3	18.3
평균동거기간	7.1	8.0	9.4	10.4	10.5	10.6	11.4

자료: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 2005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는 결혼 5년이내 이혼하는 경우가 1985년에 41.5% 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4년 25.2%로 나타난 반면, 결혼생활 10년 후 이혼은 1985년 27.8%에서 2004년에는 51.9%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년이상 결혼생활한 부부의 이혼비중이 1985년 4.7%에서 2004년 18.3%로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한편, 평균동거기간은 1985년 7.1년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 11.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동거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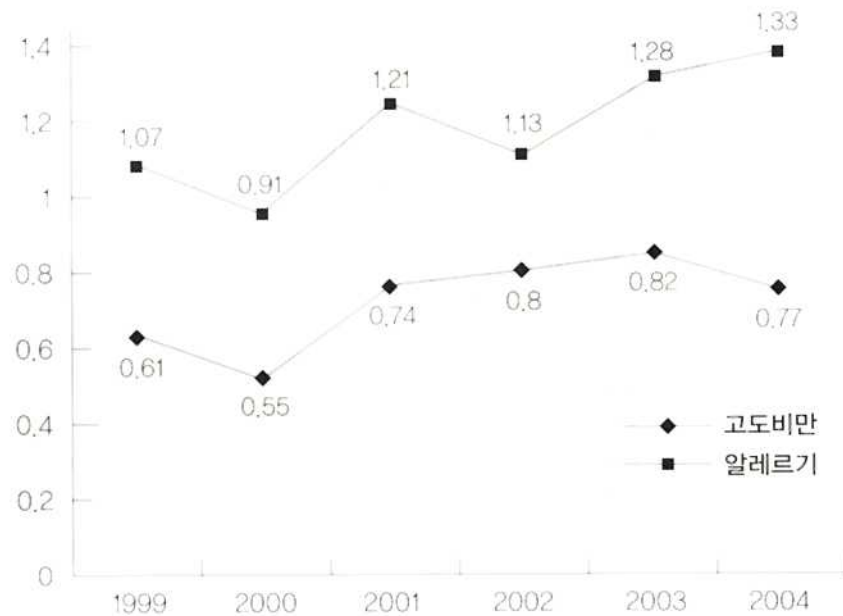


건강
안전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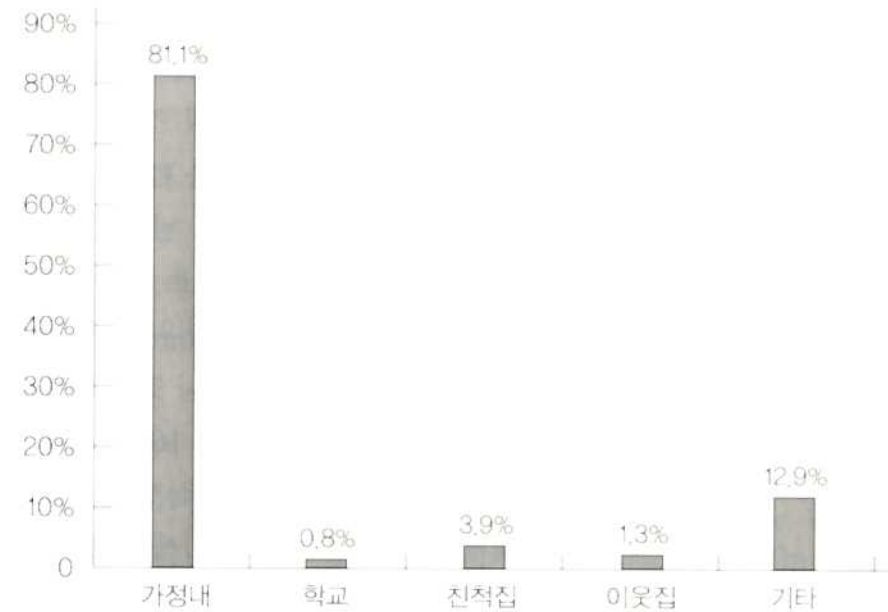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체격은 신장되었으나 체력은 저하되고 체질은 악화되었다. 청소년의 체질 중 알레르기 질환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도 비만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4년에는 감소하였다.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및 고도비만 비율



아동학대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81%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 발생 장소(2003년)

제 1 장 청소년의 건강

1. 청소년의 체격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격검사 결과를 과거 10년 전인 1994년도와 비교하여 키, 몸무게, 가슴둘레, 앉은키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키는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2.26cm, 중학생은 3.89cm, 고등학생은 2.57cm씩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2.13cm, 중학생은 1.89cm, 고등학생은 1.70cm씩 증가하였다. 몸무게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2.99kg, 중학생은 6.08kg, 고등학생은 5.32kg씩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2.02kg, 중학생은 2.39kg, 고등학생은 1.53kg씩 증가하였다. 가슴둘레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2.02cm, 중학생은 3.55cm, 고등학생은 2.50cm씩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1.49cm, 중학생은 0.78cm씩 증가하였으나 고등학생은 오히려 0.84cm 감소하였다. 앉은키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0.86cm, 중학생은 1.58cm, 고등학생은 0.51cm씩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0.67cm, 중학생은 0.56cm, 고등학생은 0.42cm씩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의 신장 및 체중의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중학생 시기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에 비해 여학생의 신장 및 체중의 증가폭은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평균 신장의 증가에 비해 평균 앉은키의 증가는 그리 높지 않아 상체에 비해 하체가 긴 서구형 체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청소년의 체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질검사 결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1.05%로 조사되었다. 1997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19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도 5년 전인 199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3. 청소년의 체력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국민체력 실태조사(2004)에서 50m 달리기, 오래 달리기(1,200m),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포함하는 총 6종목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체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연령별 기록을 살펴보면 몇 종목에서 여자 청소년들과 남자 청소년들의 기록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각각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와 중학교시기에 50m 달리기와 오래달리기에 기록의 저하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급격한 체중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

〈표 3-1-1〉 연도별 체질검사 결과 대비표 (단위: %)

연도별	시력(근시)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	구강	기타질환			요양
	교정대상	교정학생	귀	코	목	질환	질환	빈혈	고도비만(비만)	알레르기	호자
1984	7.80		0.40	2.10		0.70	49.40	1.20	-	-	2.90
1985	8.77		0.54	2.10		0.59	50.40	1.12	-	-	2.30
1986	8.97		-	2.18		-	41.17	1.08	-	-	2.20
1987	11.64		0.48	0.92	1.42	0.52	44.99	1.08	-	-	2.16
1988	10.84		0.44	0.99	1.31	0.45	48.74	1.07	-	-	1.72
1989	12.62		0.39	0.97	1.29	0.44	41.99	1.02	-	-	1.75
1990	14.69		0.41	1.28	1.28	0.47	51.66	1.08	-	-	1.67
1991	16.56		0.41	1.23	1.23	0.48	50.11	1.03	-	-	1.38
1992	18.44		0.40	1.44	1.18	0.52	49.44	1.02	-	-	1.13
1993	20.13		0.39	1.56	1.19	0.52	49.83	1.00	-	-	2.46
1994	22.71		0.37	1.62	1.11	0.56	50.51	0.95	-	-	1.34
1995	24.88		0.38	1.67	1.08	0.56	51.21	1.00	-	-	1.35
1996	25.99		0.37	1.77	1.14	0.51	46.05	0.98	(0.71)	0.99	1.09
1997	25.65		0.36	1.65	1.06	0.50	44.51	0.92	(0.81)	1.02	0.81
1998	26.89		0.38	1.64	1.53	0.61	58.39	1.08	(0.87)	1.00	0.54
1999	17.04	21.90	0.43	1.38	1.62	0.70	57.61	-	0.61	1.07	0.68
2000	18.36	21.40	0.43	1.16	1.13	0.55	57.40	-	0.55	0.91	0.93
2001	18.90	20.63	0.46	1.48	1.65	0.86	57.46	-	0.74	1.21	0.76
2002	19.70	22.62	0.42	1.53	1.45	1.07	59.38	-	0.80	1.13	0.88
2003	19.40	22.12	0.35	1.58	1.99	1.29	58.15	-	0.82	1.28	1.11
2004	17.68	22.55	0.34	1.66	1.56	1.33	55.52	-	0.77	1.33	1.0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신체검사규칙 개정(1996. 2. 7)으로 검사항목중 알레르기성 질환, 비만 등 추가하고, 재 개정(1999. 3. 8)시 시력 : '교정대상 학생' 과 '교정한 학생' 으로 구분(교정대상 : 나안시력 0.7미만인자), 비만 : 종전에는 정상체중보다 20%이상인 경우 '경도비만', '중등도비만' 또는 '고도비만' 으로 구분하던 것을 표준체중보다 50%이상인 경우(고도비만)만 기록)

년에서 중학교 시기에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에서 기록의 저하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체지방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등학교시기에 남녀 모두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에서 기록의 저하를 나타냈는데 이는 입시준비에 따른 학업의 증가로 체육활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이사항으로는 앓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서 남·녀 모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일부 시기에 기록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 시기의 유연성 발달의 문제라기 보다는 신장이나 하지장의 변동 등 해부학적인 특성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학교 시기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유연성의 발달이 보다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

체력실태조사의 연도별 측정 자료를 비교해보면 윗몸일으키기, 앓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제외한 나머지 네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기록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체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4. 청소년의 영양

가. 식품섭취 실태

보건복지부가 200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서울 및 전국의 6개 광역시 및 9개 도 지역의 200개 지구 총 4천 가구(총 가구원 수 약 12,000명)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도 식품섭취 변화실태에 따르면 동물성식품의 경우 1969년에 1인 1일 평균 32g을 섭취하던 것이 1984년에서 141g, 2001년에는 262g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식물성식품은 1인 1

일 평균 섭취량이 1969년 1,024g이던 것이 1995년에는 871g으로 집계되었다. 1998년 이후 조사방법의 변경에 의해 개인별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1998년에는 1,043g, 2001년에는 1,053g으로 집계되었다. 총 식품섭취량 중 식물성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동물성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여 1969년 식품섭취량 중 식물성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97%였으나 2001년에는 80.1%로 집계되어 20% 정도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에 정의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층의 식물성식품 섭취비율은 연령층별로 70.2%~81.1%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 실태

우리나라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실태는 청소년 1일 영양권장량과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표 3-1-2>의 청소년 1일 영양권장량은 한국영양학회에서 2000년에 개정·발표한 제 7차 한국인 영양권장량에서 발췌한 것이다.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실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전국적인 조사 결과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¹⁾ 결과이며 이를 제 7차 개정 한국인 영양권장량과 비교하여 영양소별로 그 섭취량을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어 <표 3-1-3>에 실었다.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평균섭취량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3~19세 청소년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섭취상태가 떨어졌다. 모든 연령층에서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과 철로서 특히 여학생의 경우 섭취량이 권장량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단백질, 인, 티아민, 비타민 C 등은 권장량에 비해 섭취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1) 이 조사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004년도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조사가 늦어지면서 2005년도에 실시되어 부득이하게 최신자료를 실시 못하고 2001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나타났다.

<표 3-1-2> 청소년 1일 영양권장량

구분 성별	연령 (세)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비타민C (mg)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칼슘 (mg)	인 (mg)	철 (mg)
남 자	10~12	2,200	55	600	1.1	1.3	15	70	10	800	12
	13~15	2,500	70	700	1.3	1.5	17	70	10	900	16
	16~19	2,700	75	700	1.4	1.6	18	70	10	900	16
	20~29	2,500	70	700	1.3	1.5	17	70	5	700	12
여 자	10~12	2,000	55	600	1.0	1.2	13	70	10	800	16
	13~15	2,100	65	700	1.1	1.3	14	70	10	800	16
	16~19	2,100	60	700	1.1	1.3	14	70	10	800	16
	20~29	2,000	55	700	1.0	1.2	13	70	5	700	16

자료 : 한국영양학회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7차 개정, 2000

<표 3-1-3> 청소년의 영양소별 영양권장량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연령별)

영양소	연령(세)					
	남 자			여 자		
	7~12	13~19	20~29	7~12	13~19	20~29
에너지	99.4	91.1	94.5	90.3	87.4	94.4
단백질	149.3	118.8	123.7	131.1	101.5	124.7
칼슘	68.5	54.9	74.2	59.9	54.7	66.9
인	151.8	146.1	192.8	131.7	126.2	156.2
철	88.9	74.8	111.7	69.7	60.2	71.3
비타민 A	99.9	89.5	105.2	86.7	74.3	91.9
티아민	134.1	123.3	119.1	121.1	115.3	130.2
리보플라빈	104.9	91.5	91.0	93.7	85.4	95.2
나이아신	109.3	107.1	118.4	104.3	98.9	126.6
비타민 C	187.0	164.6	180.4	172.0	166.5	207.2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영양조사Ⅱ」 2002, 12

영양소별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을 섭취하는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칼슘, 철, 비타민 A 섭취의 경우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을 섭취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칼슘의 경우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을 섭취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60~80%로 가장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철의 경우 75% 미만을 섭취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남학생은 13~19세 사이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조사 전 2일간의 끼니별 식사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결식율(연령별)
(단위: %)

연령(세)	끼니	아침	점심	저녁
전국		21.1	4.3	3.3
남자전체		19.6	3.5	1.9
7~12		12.2	1.7	1.1
13~19		30.9	4.4	1.2
20~29		44.9	5.9	5.1
여자전체		22.5	5.1	4.6
7~12		16.5	1.2	2.3
13~19		43.0	5.5	8.5
20~29		45.8	6.9	7.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국민건강 영양조사-영양조사1」 2002. 12

다. 청소년의 식사 실태

청소년의 결식상황을 조사 전 2일간의 끼니별 식사여부에 근거해 판단할 때(〈표3-1-4〉), 연령 및 성별에 따라 12.2%~45.8%에 이르는 청소년이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결식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아침 결식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에는 전체의 절반정도가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평소 외식 빈도를 살펴보면 하루에 한번 이상 외식하는 비율이 77.5%이며 하루 1회 이상 하는 경우도 31.7%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에 비해 남자의 외식 빈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외식 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장 청소년의 안전

1. 청소년의 산업재해

가. 산업별 재해발생 현황

2004년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 수 1,039,208개소에서 총 88,874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재해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재해자 88,874명 중 18세 미만의 재해자 수는 53명으로 0.06%를 차지하였으며, 18~24세 미만의 재해자는 4,037명으로 4.54%를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 2003년도에 일어난 청소년 산업재해자 수보다 감소한 수치이다²⁾.

2) 2003년에는 1,006,549개소에서 10,599,345명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18세 미만 재해자 수는 69명, 18~24세 미만의 재해자 수는 5,071명이었다.

〈표 3-2-1〉 연령별 재해발생 현황(2004년)

(단위 : 명, %)

구 분	총 계	18세 미만	18세~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35세~ 39세	40세~ 44세	45세~ 49세	50세 이상
총 계	88,874 (100.0)	53 (0.06)	4,037 (4.54)	8,188 (9.21)	10,552 (11.87)	12,052 (13.56)	13,341 (15.01)	13,287 (14.95)	27,364 (30.79)
광업	2,289 (100.0)	0 (0.00)	3 (0.13)	13 (0.57)	34 (1.49)	48 (2.10)	128 (5.59)	212 (9.26)	1,851 (80.87)
제조업	37,579 (100.0)	4 (0.01)	2,060 (5.48)	3,851 (10.25)	5,370 (14.29)	6,167 (16.41)	6,414 (17.07)	5,634 (14.99)	8,079 (21.50)
건설업	18,896 (100.0)	1 (0.01)	234 (1.24)	736 (3.90)	1,370 (7.25)	2,150 (11.38)	3,041 (16.09)	3,682 (19.49)	7,682 (40.65)
전기가스	129 (100.0)	0 (0.00)	3 (2.33)	17 (13.18)	17 (13.18)	19 (14.73)	18 (13.95)	29 (22.48)	26 (20.16)
수도업	5,099 (100.0)	1 (0.02)	130 (2.55)	435 (8.53)	601 (11.79)	746 (14.63)	797 (15.63)	833 (16.34)	1,556 (30.52)
통신업	24,882 (100.0)	47 (0.19)	1,607 (6.46)	3,136 (12.60)	3,160 (12.70)	2,922 (11.74)	2,943 (11.83)	2,897 (11.64)	8,170 (32.83)
기타									

나. 청소년 안정증진 시책

1984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전반적인 감소추세(재해율 : 1984년 3.60% → 2004년 0.85%)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2004년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높은 이유는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기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결여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부족은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들이 산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성장 일변도

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각종 사고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안전에 관한 철저한 의식을 갖고 사고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식이나 가치관, 태도의 형성과정에 있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안전의식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관련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선학교에 교사용 안전·보건 교육지도안을 배포하여 중등교사에게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교육용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생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교사용지도서, 활동지, 그림, CD로 개발·배포함으로써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의 실질적인 현장적용을 위하여 대전문화초등학교 등 64개 학교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범국민적 안전의식 활성화 방안으로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안전문화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는 한편, 가정·학교·교통·공공시설·산업현장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 국민들이 안전분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교육내용

- 초등학교 : 국민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보건사례 및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 편성
- 중 학교 :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위에 안전·보건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예방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고, 노동 및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이 형성되도록 교과내용 편성
- 고등학교 : 중학교 교육의 기초위에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기르도록 과목별 특성에 따라 내용 편성

2. 아동학대

가. 아동학대발생 현황

2003년 발생한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 학대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방임(33%) 신체적 학대(12%), 정서적학대(7%), 성적학대(5%), 유기적 학대(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81%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3-2-2〉 아동학대 발생유형 및 발생장소(2003년)

(단위 : 건)

계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유기	중복학대	가정내	학교	친척집	이웃집	기타
2,921	347	207	134	965	113	1,155	2,369	24	114	37	377
(%)	(11.9)	(7.1)	(4.6)	(33)	(3.9)	(39.5)	(81.1)	(0.8)	(3.9)	(1.3)	(12.9)

나. 아동학대예방센터 주요업무

최근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아동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신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반영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³⁾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긴급전화 및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근거 등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391)를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설치된 기준의 20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외에 2004년도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사각지대 해소 및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24시간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를 운영하여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으로 판별되는 사례는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 보호조

3)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참조).